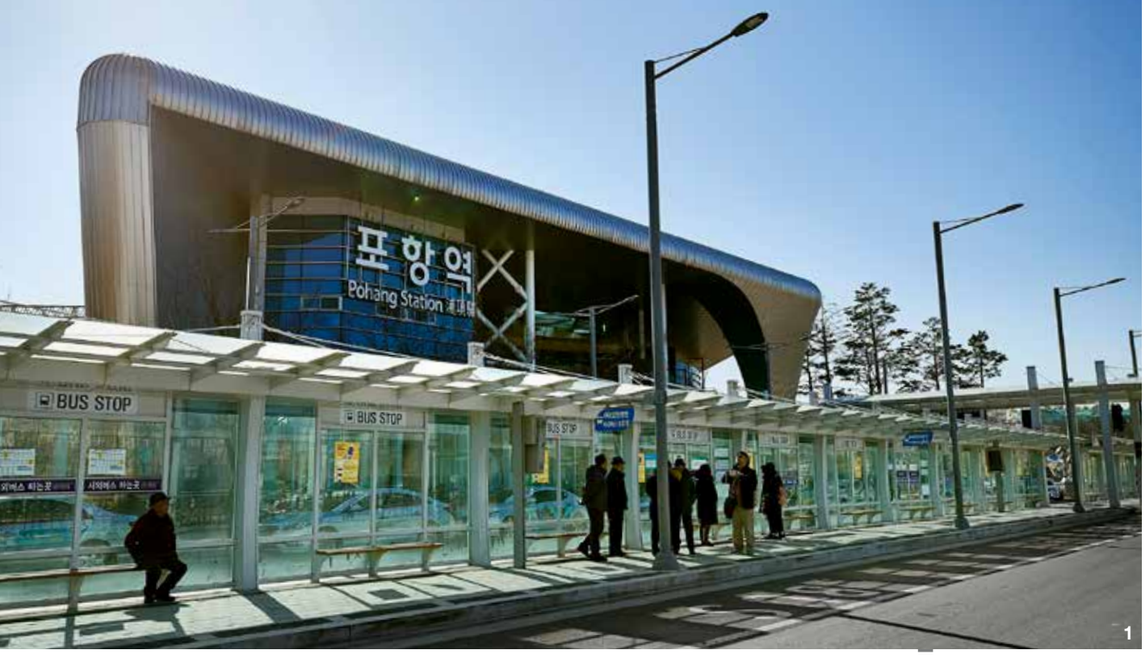
‘새내기’ 동해선 철도
푸르른 동쪽 바다 품고 달린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포항~영덕 구간 44.1㎞를 잇는 동해선 철도. 그동안 자동차로만 갔던 곳을 기차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동해처럼 푸른 빛깔의 세 량짜리 꼬마열차는 월포역, 장사역, 강구역을 거치며 그곳이 품은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여행자를 이끈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포항역 5번 승차장. 바다처럼 푸른 빛깔로 래핑한 세 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열차 정면에는 태양과 달을 모티브로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포항의 캐릭터 '연오' '세오'의 깜찍한 그림과 함께 '한반도 최동단의 숨결, 포항'이란 문구가 담겨 있다. 측면에는 '포항국제불빛축제' '영덕 둘레길' 등 지역의 축제와 명소를 홍보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영덕을 주제로 래핑한 열차에서는 대게 그림을 볼 수 있다. 단 3량짜리 조그만 열차여서인지 장난감 기차를 보는 듯하다. 편도 한 번에 161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에 오르자 내부에도 포항과 영덕의 명소를 담은 그림이 가득하다.

1호 칸과 2호 칸 사이에는 '미니 카페'가 있다. 비록 자동판매기에서 커피와 차, 음료, 물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지만 바깥 경치가 보이는 창가에는 의자도 마련돼 있다.

등산복이나 간편한 차림의 승객이 하나둘 기차에 오르고 이내 디젤 엔진의 귀에 익은 기관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서서히 북쪽을 향해 움직인다.

포항 시내를 빠져나가자 양옆으로 누런 빛깔의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다. 이내 오른쪽 차창 밖으로 멀리에서 바다의 조각이 시야에 들어온다. 어두운 터널을 몇 개 통과해 도착한 곳은 월포역. 이곳에서는 바다가 손에 잡힐 듯하다. 한낮의 환한 햇살 아래서 푸른 바다의 수면이 은빛으로 반짝거린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승객들은 창밖으로 스쳐 가는 서정적인 풍광에 눈길을 거두지 못한다.

1 동해선 열차가 출발하는 포항역
2 동해선 철도 가격 안내
3 박윤환 영덕역장
4 월포역의 티켓 자동발매기

객차 한쪽에서는 중년의 두 부부가 마주 앉아 옛적 기차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는 찐 달걀과 김밥을 먹고 있다. 창원에서 포항에 있는 친구 부부를 찾아와 함께 영덕 여행길에 오른 안병증(59) 씨는 "동해선 철도 개통 소식을 듣고 30년 만에 기차여행을 하게 됐는데 구간이 짧아 아쉽기는 하지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는 경북 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잇는 길이 165.8㎞의 철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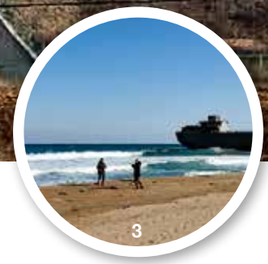
이번에 개통한 포항~영덕 구간은 경북의 동해안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유사 이래 최초의 철도로 포항~월포~장사~강구~영덕 구간을 하루 7차례 왕복 운행한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소요시간은 34분으로 자동차나 버스를 탈 때보다 20~30분 단축됐다.

포항역에서 KTX로 환승할 수 있고, 대구선, 동해남부선 열차도 탈 수 있어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 경남에서도 접근이 쉬워졌다. 동해선 철도 전 구간은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경북 동해안 가로지르는 첫 번째 열차길

속초부터 강릉, 동해, 삼척까지 이어지는 강원도 대표 관광지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산업도시이자 관광도시인 포항 등 동해안의 다른 지역은 오래전부터 고속도로나 철로가 잇고 있었지만 유독 경북 동해안에는 고속도로나 철로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국도가 아니면 닿을 수 없는 오지 같은 곳이었다.

5, 6 장애인석과 미니 카페
7 래핑된 동해선 열차



1 월포역 인근을 지나는 푸른색의 동해선 열차 2 동해선 열차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승객들 3 장사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장사해수욕장

수도권에서 가장 먼 여행지도 단연 이곳이었다. 이곳 주민이나 국내 여행자들이 동해선 철도 개통을 반기는 이유다.

동해선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건설 계획이 수립돼 1940년 공사가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일제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며 중단됐다. 동해선 철도는 처음 부설 계획이 세워진 지 80여 년이 지나서야 첫 구간 연결 공사가 완료된 셈이다.

박윤환 영덕역장은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포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영덕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물론 영덕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짧아져 타 지역 사람들이 관광명소가 많은 경북 동해안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동해선 철도가 삼척까지 이어지고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열차로 갈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개통은 미래에 영덕, 울진, 포항이 동해안권 교통과 물류의 전초기지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철길 따라 아름다운 명소 즐비…터널 구간 13곳

동해선 철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 도로 중 하나인 7번 국도와 나란히 달린다. 그만큼 주변에 관광명소가 많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철도가 국도 서쪽 편에 나 있어 해안까지 거리가 국도보다 조금 더 멀다. 터널 구간도 13개나 된다. 하지만 월포역~장사역과 전후 구간에서는 시원스러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월포역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소나무 숲이 1.2㎞ 길이 모래사장을 감싼 월포해수욕장에 닿는다. 장사역에서는 10분쯤 걸으면 장사해수욕장의 백사장과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강구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를 타면 5분 만에 강구항 대게 거리에 도착할 수 있다.

영덕역에서는 철로 아래로 난 길을 지나 고불봉 방향으로 30분을 오르면 정상에서 동해와 등대, 풍력발전단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경북 동해안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새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디자인도 흥미롭다. 월포역은 물 위에 둥근 달이 떠 있는 모습이고, 강구역은 구불거리는 강의 물길을 표현한다. 영덕역은 고래불해수욕장의 해변을 형상화해 만들어 눈길을 끈다. 장사역은 역무원이 없는 역사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열차 티켓을 자동발매기로만 살 수 있다.

이번 철도 개통에 맞춰 열차와 관광을 묶은 영덕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생겼다. 서울, 대전, 동대구에서 출발해 영덕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당일치기 여행 상품이다. 열차 여행에 서핑 강습과 장비 대여 및 체험을 더한 월포서핑투어 상품도 있다.

영덕

푸른 비경 품은 힐링 여행지

동해선 철도는 영덕군에서 장사역, 강구역, 영덕역에 정차한다. 푸른 동해를 마주하는 해변과 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 대게 거리, 해안선을 따라난 도보여행길이 여행자를 맞는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길이 770㎞ 해파랑길의 영덕 구간인 '블루로드'는 영덕 최고의 명소다. 남쪽 대게누리공원에서 삼사해상공원, 강구항, 풍력발전단지,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까지 약 64㎞에 이르는 도보여행길이다.

장사역에 내려 장사해수욕장으로 가면 '쪽빛 파도의 길'로 이름 붙인 블루로드 D코스와 합류하고, 영덕역에서는 인근 고불봉(해발 235m)에 올라 북쪽이나 남쪽으로 방향을 정해 A코스 '빛과 바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고불봉을 기점으로 더 긴 구간은 북쪽이다.

이국적인 블루로드를 따라서

고불봉 북쪽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와 해맞이공원은 블루로드 A코스 '빛과 바람의 길'이란 이름과 딱 어울리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블루로드에서 볼 수 있는 풍광 중 최고로 꼽힌다. 어디에서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원스럽게 펼쳐진 푸른 동해를 눈에 담을 수 있다.

영덕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상업용 민간 풍력발전단지로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다. 초록빛 산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웅장하고 하얀 발전기의 날개가 휘도는 광경은 무척 이국적이다. 단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는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사진촬영 명소로 꼽힌다. 단지에는 바람정원, 하늘정원, 바람개비공원 등 특색 있는 공원이 있어 천천히 거닐며 둘러볼 만하다. 전동 휠을 타면 발품을 팔지 않고 돌아볼 수도 있다.

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해맞이 캠핑장, 항공기전시장, 야외공연장이 있고 고산 윤선도의 시비도 만날 수 있다. 윤선도는 영덕에서 유배생활 중 지은 '고불봉'이란 시에서 "여러 봉우리 중 최고로 뛰어난 봉우리이네/ 어디에 쓰이려고 구름, 달 사이로 높이 솟았나"라고 읊었다.

해안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해맞이공원의 상징물인 창포말등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게 집게발이 등대를 감싸 쥔 형태의 등대는 바다와 어우러져 낭만적이다. 등대 아래 산책로를 따라가면 물고기 조각들을 볼 수 있고, 대한제국 때 의병장 신돌석이 아내에게 "가족은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는 약속바위가 있다.

북쪽으로 블루로드 B코스 '푸른대게의 길' 구간에 있는 축산항도 경치가 수려하다. 조선 시대까지 섬이었다가 자연적으로 육지와 연결된 죽도산에서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푸른 물결 춤추는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죽도산 아래에는 길이 139m의 보도현수교인 블루로드 다리가 놓여 있다.

1 영덕 풍력발전단지의 이국적인 풍경
2 해맞이공원의 창포말등대
3 축산항 인근 차유 대게원조마을에 있는 '대게원조마을' 비석
4, 5 축산항과 죽도산에서 바라본 풍경

1 대게잡이 어선이 정박한 강구항
2 강구항 대게거리 풍경
3 삼사해상공원 영덕어촌민속전시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4 삼사해상산책로
5 삼사해상공원에 있는 '경북대종'
6 장사해변에 있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동상들

강구항, 해산물 좋아하는 미식가들의 천국

강구역에 내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강구항이다. 이곳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대게, 오징어, 청어, 방어 등이 많이 잡힌다. 해산물을 즐기고 싶은 미식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다.

강구버스터미널에서 강구대교를 건너 강구항에 이르는 길에는 이곳이 영덕대게 집산지라는 것을 알려주듯 대게 식당이 즐비하다.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서 거대한 대게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식당 수족관마다 싱싱한 대게가 꿈틀거린다. 식당가 맞은편에서는 조그만 대게잡이 어선들이 아직 차가운 바닷물에 배를 깔고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대게는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으며 곧고 길쭉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날씨가 차가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제철이다. 특히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차서 '박달대게'라 불리는 최상등급 대게는 3~4월에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한다.

아침 일찍부터 강구항에서는 수많은 대게와 홍게를 바닥에 깔아두고 흥정을 벌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곳 식당에서는 대게를 회, 찜, 구이, 튀김, 게장 비빔밥 등 코스로 즐길 수 있다. 다소 비싼 것이 흠이다.

강구항 남쪽으로는 삼사해상공원이 있다. 영덕의 대표 해맞이 명소로 공연장과 분수대를 갖췄다.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을 기념해 조국통일과 민족 화합을 염원하며 1996년 주조한 '경북대종'과 무게 20t 꽃돌인 '천하제일화문석'을 볼 수 있다. 공원 바로 남쪽에 있는 해상산책로에서는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 아름다운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전쟁 전적지 '장사해수욕장'

장사역에서 10분쯤 걸으면 닿는 장사해수욕장은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여름 휴가지다. 길이 900m의 백사장을 초록빛 소나무 숲이 두르고 있다. 백사장 모래가 굵어 찜질에 좋다고 한다. 일출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장사해변은 한국전쟁 전적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교란작전인 '장사상륙작전'이 펼쳐졌다. 인천 반대편인 영덕에 기습 상륙해 적들이 상륙 지역을 오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은 문산호를 타고 상륙해 도로를 봉쇄하고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작전 중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문산호는 좌초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문산호는 1997년 난파선으로 발견됐다.

장사해변 오른편에는 전승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 바다에는 문산호를 본뜬 배가 떠 있고 해변에는 작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이 서 있다. 한쪽에선 군복 입은 학도병들을 묘사한 조각들이 내방객들을 반긴다.

1, 2 월포역과 월포해수욕장
3 내연산 소금강 전망대

4 소금강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
5 내연산의 폭포
6 신라 시대 사찰인 보경사
7 포항운하의 낭만적인 해 질 녘 풍경

포항

풍경 수려한 한반도의 꼬리

한반도의 꼬리에 해당하는 포항은 예부터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일출명소인 호미곶은 조선 10경 중 하나로 꼽혔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로 알려졌지만 비경을 품은 산과 바다,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어 여행지로 그만이다.

포항 최북단에 있는 내연산(內延山)은 최고봉이 해발 930m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선 가장 높은 산이다. 산행은 보통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내연산은 그렇지 않다. 계곡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 기암절벽과 폭포를 감상하고 내려오면 되는 산이다.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내연산 접근이 편리해졌다. 포항 시내에서 출발하면 1시간 30분 걸렸지만 월포역에서 510번 버스를 타면 30분 만에 닿을 수 있다.

골짜기에 참모습 간직한 내연산

내연산의 원래 이름은 종남산(終南山). 신라 진성여왕이 견훤의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문 이후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조선 시대 화가 겸재 정선은 포항에 2년간 머물 때 내연산의 풍광에 반해 이곳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내연산의 참모습은 골짜기에 있다. 12개의 폭포와 소(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선일대와 최근 조성된 소금강 전망대에서는 선계 같은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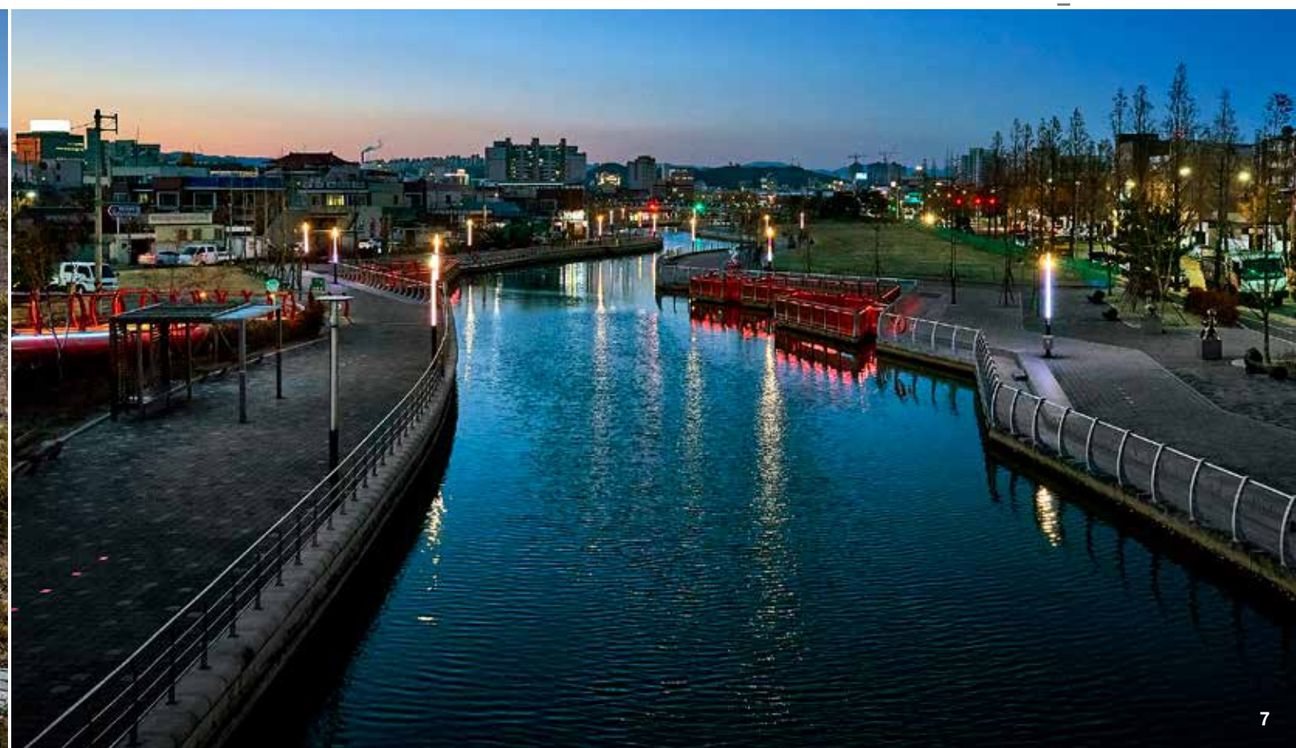
신라 시대 사찰인 보경사를 지나 왼쪽 길로 접어들어 평탄한 산길을 1.5㎞쯤 가면 상생폭포, 보현폭포, 삼보폭포 등이 하나씩 나타난다. 이 중 잠룡폭포 일대 골짜기는 영화 '남부군'에서 수많은 남부군 대원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찍은 곳이다.

계곡을 따라가면 폭포를 계속 볼 수 있지만 소금강 전망대로 가려면 보현암 방향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보현암에서 30분 정도 가파른 탐방로를 오르면 드디어 전망대가 나타난다. 바닥에 투명 유리가 깔린 반원형 전망대에서는 내연산 계곡과 폭포, 맞은편의 선일대가 아이맥스 영상처럼 시야를 가득 채운다.

활기찬 죽도시장, 낭만적인 포항운하

포항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로 점포가 1천300여 개에 달한다.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회센터를 비롯해 수산물·건어물·농산물·생활용품 점포가 25개 구역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과메기, 회, 물회, 대게 등 포항의 대표 먹거리를 싼값에 맛볼 수 있다. 겨울에는 특히 과메기와 대게를 파는 수산물 구역이 가장 붐빈다. 과메기는 1만원,



1

5

6

7

1, 2, 4 먹거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죽도시장
3 죽도시장의 명물 호떡
5 과메기 말리기
6 구룡포 벽화마을
7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8 호미곶 해안둘레길에서 바라본 풍경
9 호미곶의 상징인 '상생의 손'

2

3

4

8

9

1만5천원, 2만원 단위로 포장 판매해 사 들고 가기 좋다. 야채, 미역이 들어 있는 세트도 있다. 고래고기, 칼국수와 수제비, 돼지국밥과 한우곰탕, 보리밥정식, 그리고 다양한 맛의 호떡이 군침이 돌게 한다.

죽도시장 동쪽에 있는 포항운하는 낭만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과거 동빈 내항과 형산강 사이의 매립지에 물길을 만든 곳으로 운하 양옆으로 깔끔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군데군데 예쁜 다리가 놓여 있다.

이곳에선 크루즈 여행도 즐길 수 있다. 포항운하관 크루즈선착장에서 출발해 포항운하와 동빈내항,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돌아오는 기본 코스, 운하를 따라 포항여객선터미널까지 갔다 돌아오는 내항 코스가 있다.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운하, 항구, 해수욕장의 모습은 꽤 낭만적이다. 특히 7~9월에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다. 크루즈는 각각 40분이 걸린다.

포항운하 여행의 백미는 해 질 녘에 만날 수 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 운하 수면에 다리와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며 동화 속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여름에 크루즈를 타면 황홀한 석양도 감상할 수 있다.

호미반도길, 기암과 바다의 하모니…경치 가장 좋은 선바우~마산리 구간

포항에서 반드시 들를 여행지를 꼽는다면 뭐니뭐니해도 호미반도다. 심신을 치유하는 산책로로 이름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해돋이 명소인 호미곶,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 눈길 끄는 명소가 널려 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포스코 인근에서 시작해 해안선을 따라 도구해수욕장,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장군바위, 구룡소를 거쳐 호미곶까지 이어진다. 호미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난 해파랑길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58㎞에 달한다. 이 중 바다 위로 목재 덱을 설치한 입암리 선바우~마산리 700m 구간의 경치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 길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수놓은 기암절벽과 주상절리를 감상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호미곶에서는 바다에 설치된 조형물인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인근 바닷가를 걷는 것이 방문객의 필수 코스다. 바다 위에 설치된 전망 덱에는 해가 뜨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소년 동상이 서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의 풍광도 아름답다. 호미곶 해맞이광장에는 새천년기념관이 서 있고, 북쪽으로는 국립등대박물관이 있다.

호미곶 남쪽의 구룡포에는 앞바다에서 용 아홉 마리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곳 어장에는 물고기가 풍부하고, 해안선은 경치가 빼어나다. 하지만 이곳은 100여 년 전 물고기 떼를 쫓아 찾아온 일본인이 모여 살며 수탈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구룡포항 뒤편 골목에는 일본인 가옥거리가 조성돼 있다.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좁은 골목을 따라 일본식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촬영한 가옥도 있다.

동해선 열차 개통으로 포항과 영덕은 물론 인근 청송, 울진으로 가는 길이 한층 편리해졌다. 경북 동해안은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봄맞이 여행에 나서기 좋은 곳이다. 3월에는 영덕대게축제가 열린다.

동해선 열차 어떻게 이용하나

KTX를 타면 포항까지 서울에서 2시간 30분, 대전에서 1시간 20분, 동대구에서 35분 정도 걸린다. KTX로 포항에 도착해 영덕까지 가는 여행자라면 동해선 철도의 첫차와 막차를 제외한 5개 열차를 20분 이내에 갈아탈 수 있다. 돌아가는 열차 편도 17시 9분 포항역 도착 열차를 제외하면 모두 20여 분 만에 KTX로 환승할 수 있다. 수도권 주민은 당일치기로 포항과 영덕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구·경북 주민은 대구선 열차도 이용할 수 있다. 무궁화호가 포항~동대구 구간을 하루 4편 왕복 운행한다. 동해선 열차 요금은 구간에 관계없이 2천600원.

영덕시티투어

서울역에서 오전 8시 15분 출발하는 KTX-산천으로 포항까지 가서 동해선 철도로 갈아타고 영덕에 도착해 즐길 수 있는 버스 여행 프로그램. 강구항 대게거리, 삼사해상산책로, 축산항, 해맞이공원과 풍력발전단지, 블로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 신돌석장군 유적지, 영해만세시장, 괴시리전통마을, 목은이색전시관, 고래불해수욕장을 돌아본다. 영덕에서 오후 6시 25분 동해선 열차에 오르고 포항역에서 오후 7시 20분 KTX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가격은 서울 출발 9만2천200원부터, 대전 출발 6만2천800원부터, 동대구 출발 3만4천원부터. ☎ 054-722-7604, 054-278-8500

≫동해선 철도 시간표

포항 ▶ 영덕

열차번호	포항	월포	장사	강구	영덕
1731	07:58	08:10	08:19	08:26	08:32
1733	09:27	09:39	09:48	09:55	10:01
1735	10:56	11:08	11:17	11:24	11:30
1737	13:30	13:42	13:51	13:58	14:04
1739	15:40	15:52	16:01	16:08	16:14
1741	17:15	17:27	17:36	17:43	17:49
1743	19:30	19:42	19:51	19:58	20:04

영덕 ▶ 포항

열차번호	포항	월포	장사	강구	영덕
1732	08:52	08:59	09:06	09:14	09:26
1734	10:21	10:28	10:35	10:43	10:55
1736	11:50	11:57	12:04	12:12	12:24
1738	14:45	14:52	14:59	15:07	15:19
1740	16:35	16:42	16:49	16:57	17:09
1742	18:25	18:32	18:39	18:47	18:59
1744	20:50	20:57	21:04	21:12	21:24

과메기문화관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뒤편 언덕에 있다. 물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해양체험관, 과메기의 어원과 유래를 이야기와 그림, 모형으로 소개하는 과메기 홍보관, 구룡포의 어업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과메기 문학관으로 구성된다. 꽁치와 청어를 줄에 엮어 말리는 장면이 모형으로 제작돼 있고, 과메기를 파는 식당이 재현돼 있다. 야외전망대에서는 시원스럽게 펼쳐진 동해를 바라볼 수 있다.

관람시간 09:00~18:00(월요일, 설, 추석 휴관) **관람** 무료

≫둘러볼 곳

국립등대박물관

포항 호미곶에 있는 국내 유일의 등대 전문박물관이다. 항로 표지 관련 유물, 등대원의 생활과 등대 관련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유물관, 인류의 항해와 등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역사관, 등대 블록 쌓기와 스크린 터치로 등대 만들기나 내비게이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공기사이렌 나팔, 장거리 무선항법 송신 장비가 있다. 테마공원에는 우리나라 등대의 미니어처가 전시돼 있다.

관람 무료 **관람시간** 09:00~18:00(월요일, 설, 추석 휴관) ☎ 054-284-4857

영덕어촌민속전시관

삼사해상공원에 있는 전시관으로 영덕대게와 어촌의 생활·문화를 보여준다. 어선 모형과 고기 잡는 법을 소개한다. 풍어를 기원하는 별신굿 장면, 그물로 대게를 끌어올리는 모습, 대게가 가득한 강구항 풍경도 연출돼 있다. 배를 모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생대, 고생대의 다양한 어류 화석이 있다. 배 모양의 야외전망대에서는 영덕 앞바다의 시원스러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시간 09:00~18:00(월요일, 설, 추석 휴관) **관람료** 일반 2천원, 학생 1천원 ☎ 054-730-6790

구룡포근대역사관

일본 가가와(香川)현 출신 어민으로 구룡포에 와서 큰 성공을 거둔 하시모토 젠기치의 살림집. 일본식 목조 2층 가옥으로 일본에서 가져온 건축 자재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다다미가 깔린 방과 난방도구인 '고타쓰', 유카타를 입은 인형, 재봉틀, 전화기 등 당시 생활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구룡포의 옛 모습도 사진과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관람시간 10:00~17:00(월요일 휴무) **관람** 무료
☎ 054-276-9605

영덕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영덕풍력발전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풍력, 태양열, 파력, 바이오매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원리를 배우고 태양광자동차, 수소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다. 태양열 이용 창포 족욕탕, 태양광 이용 프리즘,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오르골을 볼 수 있다.

관람시간 09:00~18:00(월요일, 설, 추석 휴관)
관람료 일반 1천500원, 청소년 & 어린이 800원
☎ 054-730-7052

영덕대게축제

'왕이 사랑한 대게'를 주제로 3월 22~25일 강구항 해파랑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영덕대게를 주제로 하는 마당극이 열리고, 대게 경매, 대게 낚기, 수레에 대게 싣고 달리기, 양념게장 만들기, 요리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054-730-6682